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20

중도 · 관용으로 행복하라

[원문] 백의관음무설설(白衣觀音無說說) 남순동자불문문(南巡童子不問問) 병상녹양삼제하(甁上綠楊三除夏) 암전취죽시방춘(巖前翠竹十方春) -낙산사 흥련암

[번역] 흰 옷 입은 관음은 말없이 말하고 남순 동자는 들을 없이 듣는다. 꽃병위의 버들 항상 여름인데 바위 위의 대나무는 시방의 봄일세.

[신해(禪解)]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 속에는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때때로 좋은 인연만을 만날 수 없고 때때로 나쁜 인연만 만날 수도 없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이 속에는 언제나 '미움과 사랑'이 공존한다.

그래서 <법구경>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말자.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자주 만나 괴롭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부처님은 '사랑과 미움'이라는 두 개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중도(中道)'다. 인간이 '중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집착'이다. 집착은 인간으로 하여금 탐욕과 증오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마침내 자기를 자제할 수 없는 늪으로 빠뜨리는 원인이 된다.

요즘 나는 신문이나 뉴스를 듣는 것이 괴롭다. 날마다 죄의 온상이 판을 치고 정치인은 온전하게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더욱이 북한의 핵(核) 때문에 불안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이런 속에서도 권력욕에만 눈이 멀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산승에 있는 산승(山僧)의 눈과 마음으로 가능해도 그들의 무지와 타락이 한눈에 다 보이는 것 같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종교계의 원로들을 불러 오찬을 가졌다고 한다. 그 때 우리 조계종의 수장인 지관 스님은 정중히 거절을 했다고 한다. 불교계의 원로로서 참으로 올바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 대통령의 영결식 때 노제에 쓰인 2,000여개의 만장이 PVC에 매달렸다. 영결식의 만장에 쓰인 대나무가 시위대의 족장으로 쓰일지도 모른다는 이유였다. 이것은 마치 '구멍기 무서워 장 못 담근

다'는 속담과 다를 바가 없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불가에서 '만장'은 고인에게 드리는 마지막 편지와 같아 다비식 후 모두 태우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우면 독한 기름 냄새가 나는 PVC 봉을 사용하게 한 것은 바로 부처님이 강조하신 '사랑과 용서'의 정신에 위배 되는 것이며 부처님이 강조하신 '중도의 마음'을 잃은 탓이다. 만약,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러한 부처님의 '중도의 정신'을 안다면 이런 발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그 만장은 우리 불교계의 수장인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직접 휘호를 써 매단 것이었다.

한갓 알량한 정치적 판단으로 이마저도 거부한 현 정권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며칠 전 전국 교수회의에서 현 정권에 대한 강력한 시국선언이 나왔겠는가? 이젠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낙산사 흥련암은 강화도 보문사, 남해 보리암과 더불어 3대 관음기도도량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

견했다는 관음보살을 후세 사람들도 보게 하기 위해 풀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의상 대사에게 여의주를 바친 용이 흥련암의 불법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다는 주장도 있다.

요즈음에는 꽤 설득력 있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동양종교학과 교수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다름 아닌 스님들의 수행을 돕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구멍은 해조음의 파도소리를 들음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하나의 장치라는 것이다. 파도소리, 불가에서는 해조음(海潮音)이라고 부른다. 불서인 <능엄경>에서는 '진정한 삼매는 들음으로써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다. 즉 관음보살의 수행 법인 이근원통(耳根圓通)을 설명한 것이다. 능엄경에서는 수행하는 사람이 들어야 할 소리 중, 가장 귀중한 네 가지를 설명하고 하고 있는데 모음, 관세음, 법음, 그리고 해조음이다. 구멍의 크기는 처음엔 30cm 가량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사람이 빠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처럼 8cm로 줄었다고 한다.

'백의관음무설설 남순동자불문문: 흰 옷 입은 관음은 말없이 말하고 남순 동자는 들을 없이 듣는다.'

백의관음보살은 중생이 괴로울 때 그 이름을 외우면 곧 자비로써 사람들의 고뇌를 없애고 구원해 주는 자비의 보살이다. 또 구원을 구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보문시현'이라고 하고, 나타나는 형태에 따라 천수, 십일면, 여의륜, 준제, 마두 등의 이름이 있는 보살이다. 남순 동자는 관세음보살의 왼쪽에 있는 보처존(補處尊)이다. 백의관음보살과 남순 동자는 입과 귀를 초월한 절대경지에서 '법 아닌 법'을 '들을 없이 듣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 자비의 무한성은 인간의 감각을 초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중도와 관용과 사랑'이 숨겨져 있다.

관음보살 자비의 '무한성' 인간의 감각 초월해 불성의 에너지 늘 푸른 버들과 대나무에 비유

곳에 파랑새의 전설이 있다. 의상 대사는 먼 천리길 경주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동해의 바닷가인 이곳에 왔다가 파랑새가 굴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7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를 하였다가 드디어 바다에 붉은 연꽃이 피고 그 위에 선 관음보살을 만났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 암자를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흥련암이다. 통도사의 경봉 스님도 이곳에서 수행을 하다가 꿈속에서 백의관음보살을 만났다고 한다. 그때 스님은 '조사선(祖師禪)'을 체험한 기쁨으로 의상대에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고 '덩 빈 누각에 달이 밝아 나 그네 발길 더디니/ 이 흥취에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조도(祖道)의 풍광(風光)을 이제야 알겠다/ 흰 갈매기 물을 치자 붉은 해가 솟네.' 라는 한편의 선시(禪詩)를 남겼다. 그때 스님은 그 그림 있고 유연한 필체로 흥련암에 편액을 걸었다.

흥련암 법당 마루에는 특이한 형태의 구멍이 뚫려 있다. 크기 8cm 정도의 정사각형 형태의 이 구멍으로 절벽과 파도치는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다. 이 구멍은 의상 대사가 672년 이 절을 창건한 이래 단 한 번도 막아 본적이 없다고 한다. 세간에서는 이 구멍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목조 건물에는 소금기가 있는 물이 치명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바다의 해풍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구멍을 뚫어 놓은 까닭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시하기도 한다. <삼국유사>에서는 이 구멍에 대해 의상 대사가 친

의우연 곧 자비로써 사람들의 고뇌를 없애고 구원해 주는 자비의 보살이다. 또 구원을 구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보문시현'이라고 하고, 나타나는 형태에 따라 천수, 십일면, 여의륜, 준제, 마두 등의 이름이 있는 보살이다. 남순 동자는 관세음보살의 왼쪽에 있는 보처존(補處尊)이다. 백의관음보살과 남순 동자는 입과 귀를 초월한 절대경지에서 '법 아닌 법'을 '들을 없이 듣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 자비의 무한성은 인간의 감각을 초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중도와 관용과 사랑'이 숨겨져 있다.

'병상녹양삼제하 암전취죽시방춘: 꽃병위의 버들 항상 여름인데/ 바위 위의 대나무는 시방의 봄일세.'

꽃병 안에 있는 꽃은 죽어 흘러가는 세월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바위 위에 살아 있는 대나무는 온몸으로 세월을 견디며 산다. 마치 꺾여 죽은 꽃은 세월을 지탱할 수 없지만 살아 있는 식물은 세월을 온전하게 버틴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늘 푸른 대나무의 생명력은 바로 중생 모두에게 내장된 불성인 것이다.

말하자면, 흥련암 주변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은 '말하고 들음이 없는 무상(無相)의 세월 속에서도 백의관음보살은 중생에게 항상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20

본심이 보고 듣고 생각한다

[원문] 若不見性 得成佛道無有是處 有人 撥無因果 熾然作惡業 妄言本空 作惡無過 如此之人 墮無間黑闇地獄 永無出期 若是智人 不應如是見解. 問曰 既若施為運動一切時中 皆是本心 色身無常之時 何不見本心 答曰 本心 常現前 汝自不見.

'본성을 보지 못하고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옳지 못한 생각'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논리를 모르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본심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데 죽을 때에는 본심을 보지 못합니까?' 라고 묻는 그 높이가 바로 본심일텐데 말입니다. 본심 아닌 것이 없는데, 소의 등에 타고 소를 찾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여쭙기를 "그렇다면 분별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본심일 것인데 육신이 죽을 때에는 어찌하여 본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본심이 항상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 그대 스스로 보지를 못할 뿐이리라" 하셨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본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죽을 때는 왜 본심을 볼 수가 없습니까?" 하고 달마 스님께 질문했습니다.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리를 모르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본심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데 죽을 때에는 본심을 보지 못합니까?' 라고 묻는 그 높이가 바로 본심일텐데 말입니다. 본심 아닌 것이 없는데, 소의 등에 타고 소를 찾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달마혈총령(達摩越蔥嶺도) (일본 동경에술대 소장)

그래서 달마 스님은 '본심이 항상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 그대 스스로 보지를 못할 뿐이리라' 하셨습니다. 중생들은 육안으로 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면 물질은 물질이 아닙니다. 얼음과 물을 따로 보는 것은 중생의 견해입니다. 둘은 본래 하나입니다. 얼음이 따뜻한 기운을 만나면 물이 되고 물이 찬 기운을 만나면 얼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기서 '본심이 항상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 그대 스스로 보지를 못할 뿐이다'라는 말은 지금 나타나는 모든 물질도 마음이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역시 마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 물질과 마음은 하나라는 얘깁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법을 만난 겁니다. 이 법을 깨닫기 위해 부처님께서 6년이란 고행(苦行)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법 만나기가 '백천만 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 수억 겁의 세월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수경> 외우고 <반야심경>을 외운다고 하더라도 참 뜻을 모르면 불법을 만난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물질과 마음이 본래 둘이 아닌 하나'라는 그 도리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해오(解悟)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49년이란 긴 시간을 통해 먼저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먼저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돌아가는 수행법을 '선오후수(先悟後修)'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조사선, 여래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심(마음)은 어디에 있고 없는 게 아니라 우주 그대로, 마음은 그 되어 있는 진리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모양이 없는 것이기에 모양이 인연을 따라 나타나는 것들도 사실은 역시 모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 속에서 봤을 때는 진짜였죠? 그러나 깨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죠. 이렇게 꿈 속에서 봤던 것이 사실이 아니듯이,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세계도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집착하고 육신을 부리잖아요. 육신, 이것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 정주 혜은사 주지

[해설]

'본성을 보지 못하고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옳지 못한 생각'이란 말씀은 '선오후수(先悟後修: 먼저 깨닫고 나서 닦음)'를 말합니다. 부처님의 참 뜻을 이해해야만 바른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진리를 구할 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마음 밖에서 진리를 구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불도를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달마 스님은 '어떤 사람이 인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며 본래 공한 것이어서 나쁜 짓을 해도 허물이 있을 수 없다고 망언을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성품을 보고 무념(無念)의 경지에서 생사(生死)가 끊어지고 무주(無住: 머무는 바 없는)의 행이라 한다면 인과가 끊어지고 허물이 없지만,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이 막행막식을 하면서 인과도 없고 윤회도 없다고 함부로 말하면 그 과보를 피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무간(無間) 지옥'은 글자 그대로 고통을 받는 데 실 시간이 없는 지옥이란 뜻입니다.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 인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주의 근본 실상지리는 인과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실상과 하나가 되지 못할 때는 인과는 분명 따릅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슨 욕을 했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비방을 받는 과보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남을 칭찬하는 일도 언젠가는 내가 속임수를 당하는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실상지리를 닦아 나가는 것이 인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느 수행자가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지금

종사학과 (宗師學課) 개설 학인모집 (각 종단 원장급 이상을 모십니다) 1.종무행정학(宗務行政學) 2.종사사위의학(宗師四威儀學) 3.종사풍광학(宗師風光學) <입학 자격 및 전형> 1. 입학자격: 각 종단, 종정, 총무원장 및 각급 원장 이상. 2. 구비서류: 본원 소정의 입학 서류. 3. 입학전형: 소속 종단 총무원장 발행 재직 증명서 1부 4. 여권사진: 3매 ■ 수강기간: 1년 ■ 개강일시: 2009년 6월 30일 오전 10시 ■ 수강시간: 매주 화요일 10 - 15시(점심공양 제공) ■ 접 수 처: 031)676-0908 / 010-3100-9977 <학과 개설 의의> 1. 본 학림에서는 종사가 지녀야 할 종사의 기풍을 선양하고자 함. 2. 종사학은 종사가 지녀야 할 선(禪)과 교(敎)와 의식(儀式)행정 등 고도의 법상을 선양하고자 하는데 있음 3. 민족대표 백용성 조사와 봉암대강백의 뜻을 받들고자 함 龍鳳學林 중앙불교대학원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한방 (韓方)치료로 간경화, 간질 갑상선항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납,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3-중-5041호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도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향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 (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 불가능하였던 중풍 수술.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콜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